

패션 컬렉션에 나타난 블랙컬러의 패션 코디네이션 연구 -2005~2007년 컬렉션을 중심으로-

제기연 · 이경희[†]

부산대학교 의류학과

Fashion Coordination of Black Color in Fashion Collection -Focused on 2005~2007 Collection-

Gi-yeon Je · Kyoung-hee Lee[†]

Dept. of Clothing & Textiles, Pusan National University

접수일(2008년 12월 3일), 수정일(1차 : 2009년 4월 26일, 완료일 : 2009년 5월 5일), 게재확정일(2009년 5월 13일)

Abstract

This study offers data that can be used to direct the styles of black dresses by looking into the characteristics of coordination in black fashion, which is continuously appearing at modern fashion collections with a unique aesthetic value and image. This study examined the characteristic of fashion coordination of black color: First, to look at the fashion image of black color, second, to look at the characteristic of black color coordination appearing in black fashion, and third, to look at the method of coordination appearing in black color. This study collected and selected 560 black pictures that showed the fashion collections from 2005 S/S until 2007 F/W. As for data analysis, the researcher made a content analysis by classifying the pictures by item, material, accessory, and a coordination method.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fashion image of black color was expressed as sexy feminine, modern chic, modern future, genderless, and avant-garde images. Second, the fashion coordination of black color has the characteristics of sexiness and dignity by the use of body exposure, concealment, and a subdued line that expresses a modern, minimal atmosphere. The mix & match of materials expressed the monotony of one color as refined beauty and the use of accessories appeared to bring the image into relief. Third, as for the coordination method, pants on skirts, pants on dresses, piece coordination of code matching, plus-one coordination through vivid colors and accessories, and cross-over coordination relying on shape, material, and sense were prominent.

Key words: Black, Fashion coordination, Coordination method, Image; 블랙, 패션 코디네이션, 코디네이션 방법, 이미지

I. 서 론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회, 문화 등 환경의 다양한 변화 속에서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개

개인이 추구하고자 하는 욕구가 점점 차별화 다양화 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현대 패션에 있어 남과 다르게 의복을 착용하는 개성적인 센스와 감각으로 표현되어지고 있다. 의복도 같은 소재, 같은 색상 등을 맞추어 한 벌로 입었던 것이 요즘에는 같은 소재나 색상의 옷을 한 벌이라 생각하지 않으며 서로

[†]Corresponding author

E-mail: leekh@pusan.ac.kr

상반되는 디자인이나 소재 등을 새롭게 창조하고 조화롭게 입음으로써 자유롭고 개성적이며 세련된 자신만의 독특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시대로 발전해왔다(손미경, 2001). 이처럼 표현방법에 있어서도 전통적인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그 위치를 자유롭게 변화시켜 조화롭게 연출할 수 있는 패션 코디네이션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높아지고 있다.

패션에서 색채는 패션 이미지를 시각적으로 잘 반영하고 색채이미지를 통해 패션의 이미지를 구체화시킬 수 있다. 또한 코디네이션에 있어서 색채가 주는 이미지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의복의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인 색채의 관점에서 볼 때 옷을 매개체로 한 감정색은 착용자의 특정한 이미지를 전달하는 데에 옷 자체의 역할보다 더 효과적인 색채라고 할 수 있다(문혜정, 김민자, 1998).

여러 가지 색채들 중 특히 검은색은 고대부터 시작하여 대부분의 시대에 가장 중요한 색으로 다른 어느 색보다도 패션의 연대기를 지배해온 주된 색이다(이정미, 조진숙, 2006). 산업혁명 이후 과학, 기술의 발전에 따라 블랙이 모던한 색으로 여성복에 많이 사용되기 시작하였고 현대 패션의 다양한 트렌드 속에서도 가장 지속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색채로 계절과 상관없이 누구나에게 사랑받는 가장 현대적인 색으로 사용되고 있다.

블랙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블랙의상의 조형성(곽혜선, 금기숙, 1998; 이민경, 한명숙, 1999), 이미지(김기례, 채금석, 2004; 김선영, 2007; 문혜정, 김민자, 1998; 윤지윤, 김영인, 2005; 이정미, 조진숙, 2006) 연구 등이 있다. 패션 코디네이션에 관한 연구로는 디자이너에 따른 코디네이션 특성(이송림, 송명전, 2000; 진경옥, 2005), 토탈 코디네이션(손미경, 2001; 이언영, 2002), 색채 코디네이션(권혜숙, 심은아, 2004; 신윤희, 2001) 연구 등이 이루어져왔다.

이처럼, 블랙에 관한 연구와 패션 코디네이션에 관한 연구는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패션 코디네이션에 관한 연구들을 보면 특히 디자이너를 중심으로 한 연구나 색채 코디네이션에 관한 연구들이 대부분으로 특정한 색채를 통한 코디네이션 방법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블랙컬러의 패션 코디네이션에 관한 연구로 독특한 미적 가치와 이미지를 가지고 현대 패션 컬렉션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블랙컬러의 패션 이미지를 알아보고 코디네이션 특징과 방법을 통해 패션 이미지

에 따른 코디네이션에 연출 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 연구를 위해 첫째, 블랙컬러 의상에서 보여 지는 패션 이미지를 알아보고 둘째, 블랙컬러 의상과 코디네이션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패션 코디네이션 방법 들 중에서 블랙컬러에 많이 활용된 코디네이션 방법을 알아보았다. 이 연구를 위한 사진자료 수집은 2005 S/S~2007 F/W까지 패션 컬렉션에 나타난 블랙사진을 총 620장 수집하였다. 사진자료물 선정은 컬렉션에 꾸준히 활동하는 디자이너들 중에서 3년 사이에 블랙의상을 많이 발표한 디자이너를 중심으로 수집하였으며 부적절한 사진을 제외한 총 560장을 선정하였다. 자료분석은 코디네이션 특징을 알아보기 위해 코디네이션에 관한 선행연구(이송림, 송명전, 2000; 진경옥, 2005)를 바탕으로 아이템, 소재, 액세서리로 분류하여 보았으며 문헌에 나타난 코디네이션 방법으로 내용분석 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패션에 나타난 블랙의 특성

모든 빛과 색을 흡수하는 블랙은 신비, 정적, 엄숙성의 상징이고 색채에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 복식에서 수많은 상징성을 가진다(김기례, 채금석, 2004). 블랙은 고대부터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색상으로 여겨져 왔으며 생명과 관련된 긍정적인 이미지를 지니기도 했지만 옛날부터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는 색채로 인식되어왔다. 일반적으로 허무, 절망, 질병, 죽음, 암흑, 밤, 애도, 슬픔, 엄숙함, 정지, 부정, 파괴, 죄악, 금욕, 수치, 불결, 배반, 저주, 불안, 공포, 불행, 불길함, 음울, 억압 등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는 색채로 인식되어 왔다(문혜정, 김민자, 1998). 색으로 느껴지는 블랙은 대부분 부정의 의미로 많이 사용되어왔지만 패션에서의 블랙은 긍정적인 의미로도 많이 나타난다. 현대 패션에서의 블랙은 블랙이 가지는 상징적 의미와 유사한 부분도 있지만 패션이라는 범위 안에서 본다면 세련된, 모던한, 슬림한, 엄숙한, 고귀한 등으로 좀 더 다양한 이미지를 가진다.

패션에 나타난 블랙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조형성에 관한 연구에서 곽혜선, 금기숙(1998)은 형태와 소재로 나누어 조형성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흑색 의상의 상징성은 죽음, 엄격함, 간소함, 현

<표 1> 패션에 나타난 블랙에 관한 선행연구

분 류	연구자	연구대상	의 의
조형성	이민경, 한명숙(1999)	페티시패션	성, 반항, 허무, 금욕, 예로
	곽혜선, 금기숙(1998)	흑색의상	죽음, 엄격함, 간소함, 현대성, 저항
이미지	김선영(2007)	리틀블랙드레스	현대성, 관능성, 여성성, 혼성성
	이정미, 조진숙(2006)	검은색 의상	위엄성, 여성성, 모던성, 관능성, 금욕성, 비애성
	윤지윤, 김영인(2005)	패션 디자인	남성적, 단순한, 기발한, 반항적, 세련된, 간결한
	김기례, 채금석(2004)	블랙드레스	여성성, 관능성, 금욕성, 단순성, 현대성
	문혜정, 김민자(1998)	서양복식	위엄성, 우아성, 관능성, 금욕성, 비애성

대성, 저항, 성의 6가지로 정의하였다. 이민경, 한명숙(1999)은 페티시 패션에 사용된 블랙컬러의 의미는 기존의 합법화된 성문화에 대한 도전으로, 그리고 남성이나 여성으로 자신의 성 역할을 규정짓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성적 취향에 따라 새롭게 부여된 성의 의미를 표출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체의 주목성을 높여 줄 수 있는 형태와 소재를 사용하는 특성을 갖는다고 하였다.

블랙의상의 이미지 연구를 보면 김선영(2007)은 현대 패션에 나타난 리틀 블랙드레스는 시대적 고찰을 통해 20세기 전반은 여성성과 현대성, 20세기 후반은 미니멀, 아방가르드, 클래식 등 다양하게 표현되었으며 2000년대 이후는 현대성, 관능성, 여성성, 혼성성의 미적 특성을 지닌다고 하였다. 이정미, 조진숙(2006)은 검은색 의상의 이미지 연구에서 검은색 의상은 독특한 미적 특성으로 인하여 위엄성, 여성성, 모던성, 관능성, 금욕성, 비애성의 다양한 이미지를 반영하고 있으며 성별, 연령별, 결혼유무, 학력, 거주 지역에 따라 이미지 지각에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현대 패션에 나타난 블랙드레스의 이미지 연구에서 김기례, 채금석(2004)은 검정색 드레스가 형태와 소재의 다양성을 통해 관능성, 단순성, 여성성, 현대성, 금욕성의 다양한 미적 특징을 지닌다고 하였다. 윤지윤, 김영인(2005)은 무채색에 의해 전달되는 패션 디자인의 이미지 연구에서 블랙이 주는 이미지는 엄숙함/엄격한, 모던한, 악마적/불길한, 죽음의, 고독한/반항적으로 보았으며 무채색이 주로 사용되는 룩은 모던룩, 페미닌룩, 퓨처리스트룩, 매니쉬룩, 스포티브룩, 아방가르드룩이라고 하였다. 문혜정, 김민자(1998)는 서양복식에 나타난 검정색 이미지 연구에서 검정색은 복식이라는 대상을 통해 검정색의 일반적인 부정적 이미지가 반영된 비애성과 금욕성의 두 가지 이미지와, 미적인 의미가 부여된 위엄성, 우아성, 관능성의 세가지 이미지를 더한 다섯가지의 이미지를 전달하는 색채임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이상과 같이 블랙에 관한 연구는 꾸준히 이루어져 왔으나 복식에 나타난 검정색의 시대고찰을 통한 조형성, 미의식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으로, 패션에서 지속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블랙의상을 효과적으로 연출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주는 연구는 없다. 따라서 블랙컬러의 코디네이션에 관한 연구는 의미 있는 연구라 할 수 있다.

2. 패션 코디네이션에 관한 연구

코디네이션(coordination)은 '대등하게 함, 통합, 조정, 종합' 등의 뜻을 가진 말로 이 용어가 사용된 것은 1970년대부터(유태순 외, 2001)이며 패션 코디네이션은 두 가지 이상의 물건을 균형 잡히게 조합하는 것이다(이경희 외, 2006). 현대 패션 코디네이션은 기존의 코디네이션에서 개개인의 특성과 개성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되어 나타나고 있으며 컬렉션에서도 디자이너에 따라 다양하게 표현되어 나타난다. 이러한 패션 코디네이션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 <표 2>와 같다.

디자이너에 따른 코디네이션 연구에서 진경옥(2005)은 존 갈리아노는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의 토털 구성으로 대담한 패션 이미지 연출을, 절충식과 전위성을 결합한 대담한 장식은 혁명적 코디네이션 연출과 글래머러스한 패션에 상승작용을, 색채의 향연과 조화를 통해 대비되는 색채의 조합으로 다양한 이미지를 표현, 실험적 창작방법을 통해 부조화스런 소재의 조합과 변형, 파괴, 해체, 비례 등을 통해 실험적 창작미를 연출했다고 하였다. 이송림, 송명건(2000)은 샤넬 이미지의 코디네이션 분석을 첫째, 튜블러 실루엣의상은 액세서리를 비롯한 소품을 극대화시켜 개성을 돋보이게 하고 둘째, 모자는 의상의 완성도를 높이고 품위를 높이는데 기여하고 셋째, 진주목걸이는

<표 2> 패션 코디네이션에 관한 선행연구

분 류	연구자	연구대상	코디네이션 특성
디자이너	진경옥(2005)	존 갈리아노	대담한 장식, 색채의 향연과 조화, 실험적 착장방법
	이승림, 송명건(2000)	샤넬	튜블러 실루엣, 모자, 진주목걸이, 까멜리아, 향수
토탈 코디네이션	이연영(2002)	고저스	강한 트리밍, 벨벳 질감, 퍼플계열 색상, 웨이브나 업스타일, 글로시한 화장 등
	손미경(2001)	팝아트	대량생산 상품의 무늬, 스타나 만화캐릭터, 바디컨서스 스타일, 사이키델릭색채, 인공적, 불량스런 운끼
색채 코디네이션	심은아(2004)	유형	8가지 색채기준으로 분류 무채색에 의한 동일색상 코디네이션은 깔끔하고 선명한 이미지, 소재의 변화를 줌
	신윤희(2001)	라이프 스타일	실용중시형, 유행무관심형, 유행관심형으로 분류, 대부분 모노톤과 파스텔톤 선호

스타일을 완성하는 의미와 샤넬 스타일 확립을, 넷째, 까멜리아는 여성미를 부여하고 포인트를 주는데 사용하고 다섯째, 향수는 이미지 표현에 없어서는 안될 이미지 창출의 매개체라고 하였다.

토탈 코디네이션에 따른 연구에서 손미경(2001)은 팝아트 스타일의 토탈 코디네이션 연출은 흔히 보는 대량생산 상품의 무늬를 표현하거나 대중스타나 만화캐릭터를 사용, 독특한 이미지나 무늬나 색을 사용, 노출을 극대화시키는 바디컨서스 스타일을 추구하는 에로틱한 스타일, 미성숙, 액티브나 스포티, 밟고 경쾌한 이미지를 강조, 사이키델릭한 색채를 활용하여 믹스 & 매치 효과, 인공적인 색채나 이미지, 불량스런 운끼를 내세운 이미지가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이연영(2002)은 고저스 이미지를 중심으로한 토탈 이미지 연출에서 고저스 이미지는 화려한, 섹시한, 사치스럽고 환상적인 이미지 순으로 나타났으며 의상에서 트리밍이 강하거나 벨벳 질감이 고저스 하다고 평가되며 색상은 퍼플, 레드퍼플, 골드 색상이, 헤어는 웨이브나 업스타일이, 어둡고 글로시한 피부표현과 눈썹과 라인을 강조한 메이크업이 고저스하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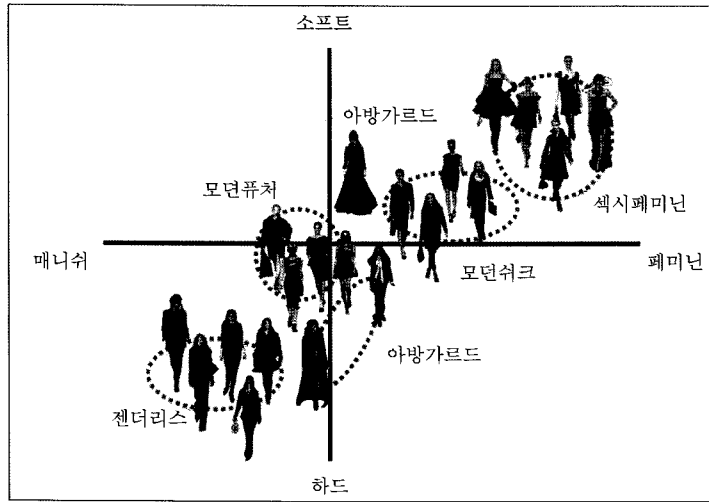
색채 코디네이션에 관한 연구를 보면 신윤희(2001)는 라이프 스타일에 따른 컬러 선호도와 컬러 코디네이션 경향분석에서 라이트 스타일에 따라 실용중시형, 유행무관심형, 유행민감형으로 분류하였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노톤과 파스텔 톤을 선호하며 세퍼레이션 코디네이션은 실용중시형에서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재킷과 바지는 하모니 컬러 코디네이션이, 재킷과 블라우스는 그라데이션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은아(2004)는 색채 코디네이션의 유형을 유채색, 무채색, 유채색의 동일색상, 무채색의 동일색상, 대조색상, 그라데이션, 악센트, 세퍼레이션

코디네이션의 8가지로 분류하였으며, 그중 무채색에 의한 동일색상 코디네이션은 톤의 확연한 대비를 통한 강하고 깔끔하고 선명한 이미지를 표출하거나 소재의 변화로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코디네이션한 방식을 주로 사용하였다고 하였다.

III. 블랙컬러의 패션 이미지

블랙에 관한 선행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의미는 위엄성, 우아성, 관능성, 금욕성, 비애성, 단순성, 현대성, 여성성, 혼성성으로 이를 바탕으로 블랙컬러에 나타난 패션 이미지를 살펴본 결과 섹시페미닌, 모던쉬크, 모던퓨처, 젠더리스, 아방가르드 이미지로 나타났다. 5가지의 이미지를 포지셔닝해보면 세로축의 소프트/하드 세로축을 매니쉬/페미닌으로 하여 <그림 1>과 같이 나타났다.

섹시페미닌은 여성성과 관능성을 바탕으로 하는 이미지로 귀여운 이미지나 여성의 우아한 분위기의 페미닌한 이미지에서 좀 더 여성스럽고 섹시함이 부각된 이미지로 포지셔닝으로는 페미닌과 소프트 사이에 위치한다. 사진의 블랙드레스는 프릴장식이 달린 롱드레스로 가슴과 다리라인을 드러냄으로써, 신체의 노출이나 신체의 곡선을 드러내는 형태 또는 블랙의 강렬한 이미지를 통해 관능성을 표현(김선영, 2007)함으로 섹시함을 더하여주었다. 또한 신체매력을 강조하는 섹시함과 더불어 드러나는 신체를 통한 우아하고 여성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함으로 성숙한 여성스러움을 강조하였다. 코디네이션을 살펴보면 프릴, 비즈장식이 많은 바디컨서스 라인의 오픈숄더 드레스+클러치백, 레이스의 비치는 재질의 허리라인이 강조된 원피스+파우치백 등으로 나타났다. 프릴과 레이스



<그림 1> 이미지 포지셔닝

장식이 많고 신체가 노출되는 원피스나 드레스 아이템에 작은 백을 연출하는 것이 특징적이다.

모던슈크는 블랙의 단순성과 현대성을 기본으로 하며 불필요한 것을 최대한 제거한 미니멀리즘의 영향이 작용된 간결하고 단순한 디자인적 특징을 보이는 모던과 현대적 세련미가 가미되어 나타나는 이미지이다. 검정색은 심플리티를 표현하기에 매우 적합하며 현대 여성 패션에서 검정색은 모더니티의 상징처럼 되어왔다. 서구문화에 있어서 검정색은 대부분 부정적이었으나 현대로 들어와 절대적 시크와 모던 표현의 미적 특성을 지니게 되었다(김기래, 채금석, 2004). 07 F/W의 발렌티노는 블랙의 슬림하고 간결한 디자인의 투피스 정장을 통해 현대적인 세련미와 여성스러움을 표현하였다. 모던슈크한 이미지에 나타난 코디네이션을 살펴보면 미니멀한 원피스와 코트+사각모양의 핸드백, 허리라인을 강조한 슬림한 정장+토트백, 피트한 원피스+벨트로 나타났다. 포지셔닝에서는 페미닌과 소프트한 면에 위치해 있지만 섹시페미닌보다는 하드한 쪽에 더 가깝게 위치해 있다.

모던퓨처는 퓨처리스틱이 나타내는 미래의, 선진적인 의미의 미래적 패션 스타일이 현대적 패션 감각으로 잘 나타난 패션 이미지로 포지셔닝에서는 축의 중심부근에 위치하며 소재에 의한 하드 함을 볼 수 있다. 패션에서 미래주의는 형태면에서의 간결한 조형적 라인의 추구, 비대칭적이며 역동적인 형태의 사선으로 비대칭적인 실루엣을 표현하는 등 동적인 특성을 갖으며(김영인 외, 2006), 다양한 색보다는 흰색,

검정, 비닐의 투명한 색에 의한 단순한 디자인에 하이테크소재를 사용한다(윤지윤, 김영인, 2005). 06 S/S의 알렉산더 맥퀸의 작품을 보면 모던한 블랙의 미니 원피스에 메탈릭소재의 팔장식과 독특한 모양의 기하학적 구성의 네크라인장식이 미래적인 이미지를 준다. 모던퓨처이미지에 나타난 코디네이션은 코트+광택재질의 넓은 벨트, 광택재질의 하드한 코트와 블랙스타킹, 비정형 네크리인이 두드러지는 심플한 원피스에 팔찌나 목걸이 등 금속재질의 액세서리로 나타났으며 대부분 모던한 의상과 인공적인 소재, 광택소재, 메탈릭소재 등의 실버 색상의 액세서리가 많이 활용되었다.

젠더리스는 1990년대 국제적으로 성별을 지칭하는 용어로 권장되고 있는 젠더에서 파생된 말로 성의 구별이 없는 중성적인의 뜻으로 남녀 복식의 경계를 허물어뜨린 패션을 표방한다(김영인 외, 2006). 고정관념의 틀을 넘어 역동성으로 표현되면서 남성도 아닌 모호한 성정체성을 지니는 것으로 블랙패션에 나타난 젠더리스는 여성의 매력을 살린 전사이미지로 강하게 나타났다. 과거 의복의 형태처럼 고정된 것이 아니라 인체를 나타낼 수 있는 방법에 연출할 수 있는 자율성을 부여하고 하나의 단일한 가치가 아닌 혼성적인 가치를 표현하고 있다(김선영, 2007).

코디네이션을 살펴보면 가죽소재의 스키니 팬츠+남성적인 재킷, 하드한 재질의 코트+가죽벨트+긴 가죽장갑+가죽부츠, 밀리터리한 코트와 모자+가죽부츠 등으로 나타났으며 포지셔닝을 살펴보면 매니쉬와 하

드한 면에 위치해 있다. 05 F/W 디올의 작품에서 블랙의 남성적 특징인 밀리터리 스타일을 부각시킨 스타일로 하의는 타이트한 팬츠를, 모자, 선글라스, 가죽 부츠 등 다양한 액세서리를 사용한 것을 볼 수 있다. 한 인간으로서의 가치가 존중되는 것에서 양성의 특징을 모두 갖추면서도 자신의 본질에 대해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성의 특징을 블랙의 타이트한 소재(이민경, 한명숙, 1999), 즉 젠더리스 이미지에서 나타나는 타이트한 블랙팬츠와 액세서리를 많이 사용하는 것이 특징적이다.

‘전위’라는 뜻의 불어로 여러 가지 패션 중에서도 특히 첨단적인 기발한 것(윤지윤, 김영인, 2005)을 말하는 아방가르드는 디자이너의 독특한 개성이 살아있는 기발하고 신선한 패션 이미지이다. 블랙패션에 나타난 아방가르드한 이미지는 신체를 은폐한 그로테스크한 이미지와 부정형 실루엣, 이질적 감각을 지닌 스커트나 팬츠의 레이어드, 독특한 디자인의 의상에 거대한 모자나 큼직한 장식으로 헤드를 부각시키는 등 다양한 코디네이션으로 나타났다. 아방가르드의 포지셔닝은 축의 중심부분에 위치하면서 넓게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윤지윤, 김영인(2005)은 가죽점퍼, 검정깃발의 연상물체는 반항적이고 고독한 색채 이미지를 주며 이는 기발하고 반항적인 패션 이미지를 통해 아방가르드 룩이라 규정하였다. 07 F/W 요지야마모토는 여러겹의 스커트와 팬츠를 레이어드하고 특이한 모자장식으로 독특한 디자인과 착장으로 디자이너의 개성을 드러냈다. 이상의 블랙컬러의 패션 이미지를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IV. 블랙컬러의 패션 코디네이션 특징

패션 컬렉션에 나타난 블랙컬러의 패션 코디네이션의 특징은 크게 신체의 은폐와 노출, 절제된 라인, 소재의 믹스 & 매치, 액세서리와 활용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신체의 노출과 은폐를 살펴보면 가슴라인을 드러낸 오프숄더 룽드레스나 미니원피스 등 신체의 특정 부위를 드러내거나 신체를 부분적으로 노출시킴으로써 여성스러움과 섹시함을 나타냈다. 신체의 은폐에서는 코트와 팬츠, 슬립한 원피스와 스타킹, 룽드레스 등의 신체를 드러내지 않는 올 블랙컬러를 사용함으로써 구찌(05 F/W) 작품과 같이 위엄과 무게감 또는 종교적 엄숙한 이미지를 주는 것이 특징적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체의 은폐는 금속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단 한가지 색의 검정색 소재로 만들어진 심플한 검정색 드레스에서는 여성의 육체적, 정신적 욕구를 억제하는 것으로 인체를 은폐시키는 장식이 없는 단순한 형태와 수수한 재질을 통해 나타나고 있다(김기례, 채금석, 2004). 신체를 노출시킨 패션에서는 한 가지 아이템에 작은 백이나 목걸이 등 액세서리의 활용이 같이 나타났으며 신체를 은폐시킨 패션에서는 2개 이상의 아이템의 결합이 두드러졌다.

블랙은 가장 현대적인 색으로 모던한 이미지를 연출에 많이 활용되는 컬러로 현대적, 도시적인 쉬크함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심플하고 간결한 절제된 라인이 특징적이다. 이는 슬더라인, 웨이스트라인, 헴라인에서의 폭이 크게 차이가 없는 직선적인 느낌을 강조한 사각

<표 3> 블랙컬러의 패션 이미지

	섹시페미닌	모던슈크	모던퓨처	젠더리스	아방가르드
특 징	-프릴, 레이스, 비즈장식과 디테일이 많은 원피스와 드레스, 작은 백	-디테일이 없는 미니멀한 원피스와 정장, 사각형 백, 벨트	-모던한 스타일과 광택소재 의상, 메탈소재의 액세서리	-남성스러운 코트와 재킷, 타이트한 팬츠, 가죽소재의 액세서리	-비정형화된 라인과 독특한 디자인, 헤드라인 부각, 레이어드
대표사진					
	07 SS 조르지오 아르마니	07 F/W 발렌티노	06 SS 알렉산더 맥퀸	05 F/W 디올	07 F/W 요지야마모토

<표 4> 블랙컬러의 패션 코디네이션 특징

구분	신체의 노출과 은폐	절제된 라인	소재의 믹스 & 매치	액세서리의 활용
특징	-섹시함을 더하기 위한 오픈숄더 드레스, 미니원피스의 신체노출 -위업과 무게감을 위한 신체를 은폐한 올 블랙 코디네이션	-모던함과 미니멀함을 강조하기 위해 심플하고 간결한 라인의 정장, 단순한 원피스와 액세서리	-한 가지 컬러의 단조로움을 시각적 세련미로 부각하기 위한 다양한 소재의 이질적 결합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해 다양한 모자, 장갑, 벨트 등의 액세서리 활용
대표사진	 05 F/W 구찌	 07 F/W 베르사체	 07 F/W 버버리	 05 F/W 발렌티노

형 실루엣으로 장식성을 배제한 모던한 이미지를 표현한다(김기례, 채금석, 2004). 장식성을 배제한 절제된 라인은 디테일 장식이나 기교가 없는 단순하고 심플한 의상으로 심플한 라인의 스커트 정장이나 원피스, 작고 사각형태의 액세서리 등이 특징이다. 베르사체(07 F/W)는 슬림한 원피스에 간결한 디자인의 액세서리를 매치하여 더욱 현대적인 심플함을 부각시켰다.

블랙이라는 한 가지 컬러로 코디네이션 할 때 그 단조로움을 좀 더 세련되게 표현하기 위해 두드러지는 특징이 바로 소재로, 소재에 변화를 주어 쉬크한 이미지를 연출하기 위해 다양한 소재를 믹스 & 매치하여 표현하였다. 버버리(07 F/W) 작품은 매트한 질감의 스커트와 광택나는 가죽재킷의 이질적 소재의 결합이 세련된 이미지를 준다. 이처럼 부드러운 소재와 거친 소재, 비치는 소재와 비치지 않는 소재, 광택과 무광택 등 이질적인 소재의 결합이 두드러졌으며 같은 느낌을 주는 유사한 재질의 의상연출도 나타났다.

코디네이션에 있어 액세서리의 연출은 빠질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인 만큼 블랙에 있어서도 다양한 액세서리의 활용이 나타났다. 특히 블랙컬러로 연출되는 이미지인 모던한, 미래적인, 남성적인 이미지 등에 액세서리의 활용이 특히 많이 나타났다. 광택나는 팔찌와 목걸이를 사용하여 미래적인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선글라스, 가죽이나 페이턴트백으로 쉬크한 이미지를 연출하거나 발렌티노(05 F/W)의 작품처럼 모자와 장갑을 사용함으로써 매니시한 느낌을 한층 더 부

각시킨 것처럼 가죽장갑, 가죽부츠, 밀리터리 스타일의 모자를 착용하여 남성적인 이미지를 나타내는 등 이미지를 더욱 부각시키는데 많이 활용되었다.

이처럼 블랙컬러의 코디네이션은 이상의 특징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섹시함과 여성스러움은 신체의 노출을, 위업과 무게감은 신체의 은폐를, 모던한 세련미를 위해서는 심플한 의상과 액세서리를 활용하면 좋을 것이다. 또한 소재의 믹스 & 매치나 액세서리를 활용하여 이미지를 변화시킨다면 단색 컬러의 단조로움을 탈피 할 수 있을 것이다.

V. 블랙컬러의 패션 코디네이션 방법

패션 코디네이션에 활용되는 다양한 방법들 중에서 블랙컬러의 패션 코디네이션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코디네이션 방법은 피스 코디네이션, 플러스원 코디네이션, 크로스오버 코디네이션으로 나타났다.

1. 피스 코디네이션

피스 코디네이션의 피스(piece)는 '조각, 단편, 일부분'의 사전적 의미를 바탕으로 패션에서는 재킷, 코트, 베스트, 바지, 셔츠, 스커트, 원피스 등의 단품을 가리키며(이경희 외, 2006) 이러한 단품을 조화 있게 연출하는 방법을 말한다. 블랙컬러의 패션 코디네이션에서는 피스 코디네이션의 종류 중에서 펜츠 온 드

<표 5> 피스 코디네이션 특징

방법	팬츠 온 드레스	팬츠 온 스커트	코트매칭
특징	- 슬림, 스트레이트 팬츠와 슬림한 원피스의 레이어드로 인한 조화로움	- 팬츠와 폭이 넓은 스커트의 레이어드로 인한 부조화속의 조화로움	- 같은 재질의 스트레이트라인의 코트매칭으로 조화로움
대표사진	 <p>07 F/W 샤넬 07 S/S 샤넬</p>	 <p>05 F/W 요지야마모토</p>	 <p>07 F/W 발렌티노 07 F/W 지방시</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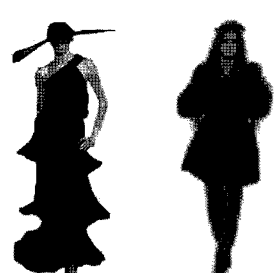
레스, 팬츠 온 스커트, 팬츠와 코트의 코트매칭이 두드러졌으며 그 특징을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팬츠 온 드레스는 샤넬(07 S/S)의 작품에서 나타나듯이 슬림한 팬츠 위에 슬리브리스의 심플한 원피스를 덧입음으로서 팬츠와 원피스의 레이어드가 어색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조화감을 잘 나타내었다. 팬츠 온 스커트에서는 슬림한 팬츠에 플레어나 러플이 달린 폭이 넓은 스커트의 레이어드가 주로 나타났는데 요지야마모토(05 F/W)는 8부 길이의 팬츠에 폭이 넓은 스커트를 레이어드하여 이질적인 느낌으로 부조화스럽게 연출하였지만 올 블랙이라는 색의 통일성으로 부조화의 조화로우움을 보여준다. 코트 매칭 코디네이션에서는 팬츠와 코트의 매칭이 스커트보다 더 많이 나타났으며 같은 재질의 스트레이트 라인으로 자연스런 조화로우움이 나타났다.

2. 플러스 원 코디네이션

플러스 원 코디네이션은 어떤 스타일에 한 가지 아이템을 더해서 새로운 이미지로 변화시키거나 기존의 이미지를 더욱 풍부하게 부각시키는 연출방법(이경희 외, 2006)으로 스카프, 벨트, 모자, 목걸이, 가방 등의 액세서리를 활용하여 포인트를 주는 방법을 이룬다. 블랙컬러의 패션 코디네이션에서는 액센트 컬러에 의한 코디네이션과 액세서리에 의한 코디네이션이 특징으로 나타나며 분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액센트 컬러에 의한 코디네이션으로는 비비드한 컬러의 머플러, 벨트가 활용되었는데 특히 레드, 예로우 컬러가 두드러졌다. 사진에서 보면 요지야마모토(05 F/W)는 블랙의상에 비비드톤의 블루 머플러형 상의

<표 6> 플러스 원 코디네이션 특징

방법	액센트 컬러에 의한 코디네이션	액세서리에 의한 코디네이션
특징	- 원색의 벨트나, 스카프 등의 액세서리와 아이템을 부가하여 시각적으로 포인트를 줌	- 모자나 백 등의 액세서리를 부가하여 이미지를 부각 - 가죽장갑, 가죽부츠, 모자 등을 부가하여 이질적 이미지를 부각
대표사진	 <p>05 F/W 요지야마모토 05 F/W 발렌티노</p>	 <p>05 S/S 조르지오 아르마니 05 F/W 샤넬</p>

를 매치하여 포인트를 주었으며 발렌티노(05 F/W)는 레이스 소재의 슬림한 블랙의 드레스에 비비드한 레드 컬러의 벨트를 부가함으로써 시각적으로 포인트를 주며 단조로운 의상에 시선을 머물 수 있는 액센트 코디네이션을 보여준다. 액세서리에 의한 코디네이션은 일반적으로 플러스 원 코디네이션에 많이 나타나듯이 다양한 모자, 가죽재질의 액세서리들이 특히 많이 사용되었다. 조르지오 아르마니(06 S/S)는 의상의 분위기를 한층 더 멋스럽게 부각시키는 챙이 큰 모자를 사용하였으며 샤넬(05 F/W)은 샤넬 특유의 광택나는 롱부츠를 여성스런 의상에 매치시켜 또 다른 분위기를 연출하였다.

이처럼 의상의 이미지를 더욱 부각시키기도 하지만 이질적인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 특히 여성스러운 분위기의 의상에 가죽부츠, 가죽장갑 등의 액세서리를 매치하여 강하고 도전적인 이미지를 주는 등 이질적인 이미지나 의도성이 있는 연출 방법으로 액세서리에 의한 플러스 원 코디네이션을 많이 활용하였다.

3. 크로스오버 코디네이션




크로스오버 코디네이션은 상반되는 디자인이나 재질, 색채, 이미지 등을 매치시킴으로써 의외성을 강조하고 신선함을 추구하는 코디네이션 방법(이경희 외, 2006)으로 블랙컬러의 패션 코디네이션 역시 형태에 의한 크로스오버, 소재에 의한 크로스오버, 감각에 의한 크로스오버로 나타났으며 분석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블랙컬러의 의상에서는 크기, 길이 등에 의한 크로스오버가 나타났는데 특히 베르사체(07 S/S)의 작품처럼 상의를 부각시키는 형태에 의한 크로스오버가 두드러졌다. 소매를 의도적으로 벌룬 형태를 부각시키거나 상의를 벌룬 형태로 부각시켜 와인글래스 실루엣을 이루는 등 특정 부분을 부풀린 형태로 부각시키는 것이 특징으로 나타났다.

소재에 의한 크로스오버는 다양한 소재의 조합들 중 특히 비치는 소재와 비치지 않는 소재, 거친 느낌의 무광택소재와 광택소재의 결합이 두드러졌다. 요지야마모토(07 S/S)는 비치지 않는 재킷과 다리가 흰 비치는 벌룬형 롱스커트를 매치하여 여성의 신체 라인을 간접적으로 노출시킨 크로스오버를 연출하였다. 무광택과 광택소재의 결합은 상, 하의 의상에서도 나타났지만 특히 무광택의 의상과 광택소재의 액세서리의 결합이 특징적으로 나타나 크로스오버 코디네이션이지만 잘 어울리는 조화로움을 연출하였다. 감각에 의한 크로스오버에서는 특히 여성감과 남성감각의 조합, 복합감과 액세서리의 조합이 특징으로 볼 수 있다. 테일러드 재킷과 여성스러운 플레어 스커트, 와이드한 가죽라이더 재킷과 미니스커트 등의 연출에 액세서리를 부가하여 더욱 감각적으로 나타났다. 모스치노(06 S/S)는 이중적인 복합감각의 의상에 웨스턴 스타일의 모자를 부가하여 다양한 감각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스타일을 연출하였다.

<표 7> 크로스오버 코디네이션 특징

방법	형태에 의한 크로스오버	소재에 의한 크로스오버	감각에 의한 크로스오버
특징	- 하의는 슬림하고 상의나 소매를 벌룬 형태로 부각시켜 와인글래스 라인 형태를 이룸	- 비치는 소재/안비치는 소재 상반신, 하반신의 신체를 그대로 노출 - 무광택소재/광택소재 무광택소재의 의상에 광택소재의 액세서리를 코디네이션	- 여성감각+남성감각 플레어 스커트 등의 여성스러운 아이템과 테일러드 재킷 형태의 남성스러운 아이템과의 조화 - 복합감각+액세서리 복합감각의 의상에 다른 이미지의 액세서리를 부가하여 이질감을 부각
대표사진	 07 FW 베르사체	 07 SS 요지야마모토	 2006 SS 모스치노

<표 8> 패션 이미지에 따른 코디네이션 특징과 방법

패션 이미지	섹시페미닌	모던시크	모던퓨처	젠더리스	아방가르드
특징	신체의 노출 액세서리의 활용	절제된 라인	소재의 믹스 & 매치, 액세서리의 활용	신체의 은폐, 소재의 믹스 & 매치, 액세서리의 활용	신체의 은폐
코디네이션 방법	플러스 원 코디네이션	플러스 원 코디네이션	플러스 원, 크로스오버 코디네이션	피스, 플러스 원, 크로스오버 코디네이션	피스, 크로스오버 코디네이션

이상의 블랙컬러에 많이 나타나는 코디네이션 방법 중에서 피스 코디네이션의 팬츠 온 드레스, 플러스 원 코디네이션에서는 액센트 컬러에 의한 코디네이션을, 크로스오버 코디네이션에서는 소재에 의한 크로스오버 방법을 사용한다면 블랙의 단조로움에서 의상을 더욱 돋보이게 연출할 수 있을 것이다.

VI. 요약 및 결론

블랙컬러는 년도, 시즌, 트렌드가 변화하여도 패션 컬렉션에서 꾸준히 등장하고 있으며 다양한 스타일과 이미지로 표현되고 있다. 이 연구는 이렇게 지속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블랙컬러가 컬렉션에서 어떻게 코디네이션되어 나타나고 있는지를 알아봄으로써 블랙컬러를 활용한 패션 연출 시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연구이며, 이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 <표 8>과 같다.

첫째, 블랙컬러의 패션 이미지는 섹시페미닌, 모던시크, 모던퓨처, 젠더리스, 아방가르드로 나타났다. 둘째, 블랙컬러의 코디네이션의 특징은 은폐와 노출, 절제된 라인, 소재의 믹스 & 매치, 액세서리와 활용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의 블랙이 가지는 섹시함과 엄숙함이 드러나는 신체의 노출과 은폐, 심플함과 모던함에서 나타나는 절제된 라인과 더불어 한 가지 컬러를 좀 더 세련되게 연출하기 위한 소재의 믹스 & 매치, 올 블랙 토탈 코디네이션을 위한 액세서리의 활용으로 볼 수 있다.

셋째, 블랙컬러의 패션 코디네이션에 사용된 코디네이션 방법은 크게 피스 코디네이션, 플러스 원 코디네이션, 크로스오버 코디네이션으로 나타났다. 피스 코디네이션 중에서도 팬츠와 스커트를 활용한 레이어드가 많이 나타난 것이 특징적이었으며 플러스 원 코디네이션에서는 액세서리 뿐 아니라 비비드한 컬러를 활용한 플러스 원으로, 액센트를 주는 것이 특징적이다. 크로스오버 코디네이션에서는 형태, 소재,

감각에 의한 크로스오버가 나타났지만 특히 소재에 의한 크로스오버가 가장 두드러진 경향을 보였다.

앞으로 블랙컬러를 활용한 스타일 연출 시 섹시페미닌한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신체가 부분적 노출된 디자인과 액세서리의 활용으로 플러스 원 코디네이션을 하고, 모던시크한 이미지 연출에는 절제된 라인의 미니멀한 의상에 백을 활용한 플러스 원 코디네이션 방법을 활용하면 효과적일 것이다. 모던퓨처한 이미지 연출을 위해서는 광택소재를 활용한 소재의 믹스 & 매치와 금속이나 광택재질의 액세서리를 활용한 플러스 원 코디네이션을 하면 효과적일 것이다. 젠더리스한 이미지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매니시한 의상과 액세서리로 시체를 은폐시킨 올 블랙 코디네이션으로 연출하고 아방가르드 한 이미지 연출을 위해서는 신체의 은폐시키고 피스 코디네이션의 다양한 레이어드와 크로스오버 코디네이션 방법을 활용하면 효과적일 것이다.

이상 이 연구는 특정한 색채에 대한 코디네이션 특성 연구로 이는 한정된 색채로 이미지나 스타일 연출 시 패션 코디네이션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한 가지 컬러에 대한 코디네이션 유형이 다양하지 못하다는 점이 연구의 한계점으로 볼 수 있지만 연구의 범위를 좀 더 넓혀 디자이너나 컬렉션별의 코디네이션 특성을 분석해 본다면 더 체계적인 연구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 박혜선, 금기숙. (1998). 흑색의상의 조형성과 상징성에 관한 연구. *복식*, 37, 231-253.
- 권혜숙, 심은아. (2004). 현대 여성 패션에 나타난 색채 코디네이션의 유형과 유형별 특성 분석.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6(3), 139-152.
- 김기례, 채금석. (2004). 현대 패션에 나타난 블랙드레스 이미지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8(8), 1076-1087.
- 김선영. (2007). 현대 패션에 나타난 리틀 블랙드레스의 미적

- 특성. *복식*, 57, 18-39.
- 김영인, 김신우, 김정신, 김희연, 송금옥, 이연희, 이현주, 조애래, 주미영, 한은주. (2006). *룩 패션을 보는 아홉가지 시선*. 서울: 교문사.
- 문혜정, 김민자. (1998). 서양복식에 나타난 검정색의 이미지. *복식*, 41, 207-223.
- 손미경. (2001). *현대 패션의 팝아트 스타일에 나타난 토탈 코디네이션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신윤희. (2001).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와 패션 컬러 코디네이션의 相關性 分析研究*. 한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심은아. (2004). *현대 여성 패션에 나타난 색채 코디네이션의 특성*. 상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유태순, 조기여, 박휘숙, 조은영. (2001). *패션 코디네이션의 이해*. 서울: 신정출판사.
- 윤지윤, 김영인. (2005). 무채색에 의해 전달되는 패션 디자인의 이미지. *복식*, 55(3), 122-135.
- 이경희, 김윤경, 김애경. (2006). *패션과 이미지 메이킹*. 서울: 교문사.
- 이민경, 한명숙. (1999). 블랙 패티시 패션이 조형성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7(2), 323-333.
- 이송림, 송명건. (2000). 샤넬 이미지를 통한 패션 코디네이션 연구. *복식*, 50(8), 129-147.
- 이언영. (2002). *토탈 패션 이미지 연출에 관한 연구 -고저스 이미지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정미, 조진숙. (2006). 검은색 의상의 이미지 연구. *복식문화연구*, 14(2), 247-259.
- 진경옥. (2005). 존 갈리아노 패션쇼에 나타난 현대 패션 코디네이션의 특성. *복식*, 55(6), 51-66.